

2023년 캄보디아 주간(8.26-9.1) 경제 동향

[경제/사회]

■ 한국 '이마트 24' 캄보디아 진출

-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이마트 24'는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에 1호점을 오픈하며, 향후 5년내에 매장수를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마트는 8.25 한국의 한림건설, 캄보디아의 Seasons Brother Holding 와 캄보디아내 사업 운영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
(Phnom Penh Post 8/28, 6면)

■ 썸 쏘카 내무부 장관, 넷 사븐 부총리에 이어 배구 연맹 총재로 선출

- 넷 사븐 부총리의 뒤를 이어 캄보디아배구연맹(VFC) 총재에 선출된 썸 쏘카 내무부 장관은 8.26(토) 연맹 총재로서의 첫 총회를 주재하면서 배구부문의 성장과 세계적 인지도 강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함.
 - 캄보디아는 올해 제 32회 SEA Games 에서 배구 종목에서 은메달 획득
(Phnom Penh Post 8/28, 1면)

■ 상반기, 캄-美 교역액 53억 달러 - 작년 대비 14% 감소

-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캄-美 양자교역액은 53억 달러로 작년 동기의 62억 달러 대비 14% 감소함.
 - 캄보디아의 대美 수출은 작년 동기(59억\$) 대비 10.6% 감소, 수입은 1.64억 달러로 작년 동기(2.6억\$) 대비 37% 감소
 - 주요 수출품 : 의류, 의류 액세서리, 가죽, 여행용품, 신발, 전기 기계
 - 주요 수입품 : 차량, 기계, 의료 기기, 의약품
 - 캄보디아의 대美 수출 감소는 미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빠옌 소빗찌어 상무부 차관은 미국시장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
 - 캄보디아는 2020년 12월 말까지 여행 상품에 대한 대美 수출 GSP 특혜관세가 적용되었으며, 미국에 GSP의 갱신을 요청한 상태
(Khmer Times 8/29, 13면)

■ 한국, 캄보디아에 프리미엄 한우 수출 계약 체결

- 한국과 캄보디아는 8.28(월) 한우를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15년 양국이 검역 협상을 완료한 이후의 첫 본격 수출 계약임.(연합뉴스 인용)
 - 한국은 향후 5년간 1억 달러 상당의 프리미엄 한우 2천 톤을 수출할 계획
(Khmer Times 8/30, 13면)

■ 1-7월, 신발 수출 작년 동기 대비 23% 감소

- 캄 관세청(GDCE)의 통계에 의하면, 1-7월 간 캄보디아의 신발 수출액은 8억 85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10억 달러 대비 22.7% 감소함.
 - 동 금액은 올해 1-7월 캄보디아 총 수출액(135억 달러)의 6%를 차지
 - 주요 수출시장 : 미국, EU, 캐나다, EU 등
 - 캄보디아 신발협회는 이러한 수출감소는 세계 경제의 영향이며, 1년전 부터 수출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설명
(Phnom Penh Post 8/30, 4면)

■ **교육부, 사립교육기관 설립 일시 중단 결정**

- 형 쭈은나론 교육부 장관은 8.26(토) ‘2023-2028 교육·청소년·스포츠’ 개혁 전략‘ 홍보 회의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교육기관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교사를 영입해 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신설 사립학교의 설립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결정과 함께 공사립 교육기관 간 교원 불균형 여부에 대한 사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Khmer Times 8/31, 1 면)

■ **캄-중국, 양자교역액 2025년 150억 달러 달성 전망**

- 봉세이 비솿 부총리 겸 각료회의(내각 평의회) 장관은 8.28(월) 캄-중국 수교 65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캄-중 FTA는 캄보디아의 수출, 특히 농산물의 대중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캄-중 양자교역액이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올해 1-7월 캄중 양자교역액은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70억 달러 기록
 - 2022년 캄-중 양자교역액은 110억 달러
(Khmer Times 8/31, 13 면)

■ **캄 정부, 농업부문 지원위해 1억 달러 예산 편성**

- 훈 마넷 총리는 8.29(화) 프놈펜시 봉제공장 근로자들과의 만남 연설에서 “정부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관개 시설을 개선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농민 교육을 위한 농업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힘.
(Khmer Times 8/31, 13 면)

■ **썸 쏘카 내무부 장관, 마약 사건 연루 관료 적발 시 해임 경고**

- 썸 쏘카 내무부 장관은 경찰학교(Police Academy)의 총장·청장·사무국장 취임식(8.30) 연설에서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 경찰이 마약 범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7대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조치할 것이라고 말함.
(Koh Santepheap 8/31, 1 면)

■ **동티모르, 캄보디아산 쌀 수입 촉진 의지 재확인**

- Francisco Kalbuadi Lay 동티모르 부총리는 8.28(월) 찜 니몰(Cham Nimul)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작년 양국이 체결한 캄보디아산 정미쌀 수출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관심있는 아세안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의 민간부문이 관련 회의 및 경제포럼을 개최하도록 독려했다고 강조하면서, 동부문 관련 양국이 체결한 MOU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바란다고 말함.
 - Kalbuadi 부총리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및 WTO 정회원 가입을 지지하는 캄보디아에 감사를 포함.
(Phnom Penh Post 8/31, 6 면)

■ **1-7월 캄보디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베트남·태국 - 전체 수입의 71% 차지**

- 캄 관세청(GDCE)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7월 캄보디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이들 세 국가들로부터의 총 수입액은 약 1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동기간 캄보디아 전체 수입액인 140억 달러의 71.2%를 차지함(작년은 57.4%).
 - * 국가별 수입액 및 점유율 : 중국 60억 달러(44.3%), 베트남 20억 달러(15%), 태국 17억 달러(11.9%)

- 한편, 동기간 캄보디아의 이들 세 국가에 대한 수출총액은 약 30 억 달러로 동기간 전체 수출액인 135 억 달러의 22.1% 차지.
(Phnom Penh Post 9/1, 6 면)

■ **캄 상공회의소, 올해 11 월 미국에서 식품 포럼 개최**

-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의 림 행(Lim Heng) 부회장은 올해 11.9-10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재 캄보디아 총영사관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식품 가공 및 농산물 전시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힘.(8.31 언론 인터뷰)
(Phnom Penh Post 9/1, 1 면)(Khmer Times 14 면)

■ **캄 민간항공청, 일본의 ANA 항공 노선 재개 요청**

- 마오 하바날(Mao havannall) 민간항공청(SSCA) 장관은 이번주 초 일본 ANA 항공사 대표와 면담을 갖고 ANA 항공의 캄보디아 노선 재개를 요청함.
 - ANA 는 2016 년부터 캄-일 직항편을 운항해왔으나 올해 4.1 프놈펜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9 월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5,561 명으로 작년 동기(6,509 명) 대비 446% 증가
 -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약 20 만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 약 2 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일본을 방문
 - SSCA 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1-7 월 3 개 국제공항의 항공 승객수는 약 290 만 명
(Khmer Times 9/1, 13 면)

[대의 협력]

■ **캄-美, 문화협력 협약 체결**

- 캄보디아와 주캄 미국대사관은 8.30(수) 문화 유대강화와 문화유산 보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은 국립박물관에서 프응 싸코나 문화예술부 장관과 W Patrick Murphy 美 대사간 체결됨.
 - 양국의 지난 20 년간 동 부문의 협력을 통해 약 100 여점의 캄보디아 유물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됨.
 - 동 행사에서 Murphy 대사는 프놈 바켕 사원의 복원을 위한 지원금 45 만 달러의 기부를 발표함.
 - 2001 년부터 미국은 캄보디아 전역의 다양한 문화보존사업에 약 6 백만 달러를 지원
(Phnom Penh Post 8/31, 2 면)

■ **인도, 꺼꽁지역 지뢰제거사업 지원**

- 캄보디아지뢰활동 및 피해자지원국(CMAA) 주캄 인도대사관은 8.31(목) 꺼꽁주 4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뢰제거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리 툃(Ly Thuch) CMAA 제 1 부국장(선임장관)은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꺼꽁주 4 개 지역(Botum Sakor, Sre Ambel, Thmar Baing, Koh Kong)에 대한 지뢰 제거 사업을 진행하며 총 예산은 426,709 달러”라고 밝힘.
(Khmer Times 9/1, 5 면)

